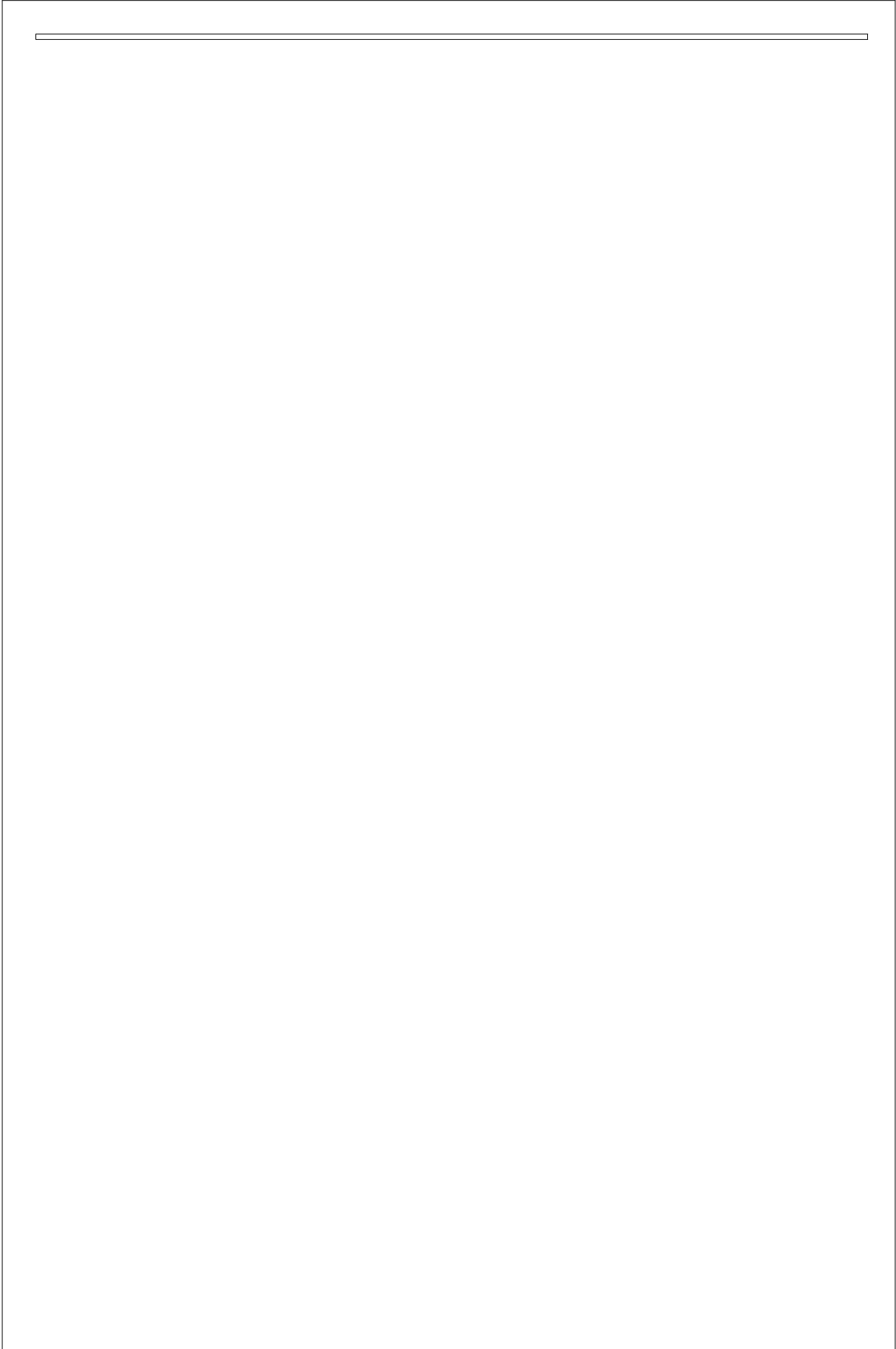


**[국산T]**

**2017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미수록 부분 & 유사작품  
[Part1]**

**Orbi Class**

**[광릉한샘기숙학원]**



수능특강 46P 동동(動動) 미수록 부분 (십이월령 중요)

九月 九日 (중양절)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十月(시월)애 아으 저미연 바랏 다호라.

보리수나무

것거 브린 後(후)에 디니실 훈부니 업스샏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 버림받은 처지

十一月(십일월)스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어

삼베옷 덮어

슬픈 일이구나 고우닐 스쉬옴 념셔

제각각 지내는구나

아으 動動(동동)다리.

⇒ 고독

十二月(십이월)스 분디남로 갓곤 아으 나술盤(반)잇져 다호라.

화분의 나무로 깎아 만든 아으 상 위의 젓가락 같구나.

님 알퐁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노다

손님, 남편

⇒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처지

아으 動動(동동)다리.

## 수능특강 50P 한림별곡 미수록 부분 (제8장 중요)

- 1장 - 시부 - 시인과 문장 예찬/ 명문장과 금의의 문하생 찬양
- 2장 - 서적 - 학문과 독서에 대한 금지
- 3장 - 명필 - 유명한 서체와 필기구 등 명필 찬양 전주서, 과두서, 서수필
- 4장 - 명주 - 귀족 계급의 주홍과 풍류 송주예주, 앵무잔, 호박배, 유명도잠
- 5장 - 화훼 - 화원의 서경(경치)
- 6장 - 음악 - 흥겨운 주악 옥기향, 종지해금, 설원장고
- 7장 - 누각 - 후원의 서경(경치) 영주, 작작, 주렴반권, 전황앵
- 8장 - 추천 - 그네 뛰는 흥겨운 정경과 풍류 생활

### [한림별곡 각 장 풀이]

#### 【제3장】

眞卿書 飛白書 行書草書 / 篆籀書 蝌蚪書 虞書南書 / 羊鬚筆 鼠鬚筆 빗기드러  
진경서 비백서 행서초서 련류서 과두서 우서남서 양수필 서수필  
위 덕논 景 記 엇더하니잇고  
吳生劉生 兩先生의 吳生劉生 兩先生의 / 위 走筆<sup>ㅅ</sup> 景 記 엇더하니잇고  
오싱류싱 량션싱 오싱류싱 량션싱 주필 경

#### ● 현대어 풀이

안진경체. 비백체. 행서체. 초서체.

진나라 이사의 소전과 주나라 태사류의 대전의 서체. 올챙이 모양의 과두 서체. 우서와 남서.

양수염으로 맨 붓, 쥐수염으로 맨 붓들을 비스듬히 들고

아! 한 점을 찍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오생과 유생 두 분 선생님께서,

아! 붓을 거침없이 휘달려 그려 나가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 주제 : 유명 서체와 명필 찬양

#### 【제4장】

黃金酒 柏子酒 松酒醴酒 / 竹葉酒 梨花酒 五加皮酒 / 鸚鵡盞 琥珀盃에 7득브어  
황금주 백조주 송주례주 독엽주 리화주 오류피주 앵무잔 호박배  
위 勸上<sup>ㅅ</sup> 景 記 엇더하니잇고  
권상 경  
(葉) 劉伶陶潛 兩仙翁의 劉伶陶潛 兩仙翁의 / 위 醉흔<sup>ㅅ</sup> 景 記 엇더하니잇고

● 현대어 풀이

황금빛 도는 술.잣으로 빚은 술.술앞으로 빚은 술.그리고 단술.

땃앞으로 빚은 술.배꽃 필 무렵 빚은 술.오갈피로 담근 술.

앵무새 부리 모양의 자개껍질로 된 앵무잔과, 호박빛 도는 호박배에 술을 가득 부어,

권하여 올리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진나라 죽림칠현의 한 분인 유령과 도잠이야 두 분 신선같은 늙은이로,

아! 거나하게 취한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주제 : 상층 계급의 주흥(酒興)과 풍류

【제5장】

紅牡丹 白牡丹 丁紅牡丹 / 紅芍藥 白芍藥 丁紅芍藥 / 御柳玉梅 黃紫薔薇 芷芝冬柏

홍모단 백모단 덩홍모단   홍작약 백작약 덩홍작약   어류옥미   황조장미 지지동백  
위 間發<sup>^</sup> 景 其 엇더하니잇고

간발   경

(엽)습竹桃花 고운 두분 습竹桃花 고운 두분 / 위 相映<sup>^</sup> 景 其 엇더하니잇고

합죽도화                      합죽도화                      상영   경

● 현대어 풀이

붉은 모란.흰 모란.질붉은 모란 / 붉은 작약.흰 작약.질붉은 작약

능수버들과 옥매, 노랑과 자주의 장미꽃.지란과 영지와 동백.

아! 어우러져 핀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합죽과 복숭아꽃 고운 두 숲에 담긴 자태가,

아! 서로 어리어 비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주제 : 온갖 꽃의 아름다움 찬양

【제6장】

阿陽琴 文卓笛 宗武中琴 / 帶御香 玉肌香 雙伽倻<sup>^</sup> 고 / 金善琵琶 宗智稽琴 薛原杖鼓

아양금 문탁덕 종무동금   디어향   옥기향   상개야                      금선비파 종지희금   설원장고

위 過夜<sup>^</sup> 景 其 엇더하니잇고

과야   경

(葉) 一枝紅의 빛근 笛吹 一枝紅의 빛근 笛吹 / 위 듣고아 줌드러지라

일지홍

덕취 일지홍

덕취

◎ 현대어 풀이

아양이 튕기는 거문고.문탁이 부는 피리.종무가 부는 종금.

명기 대어향과, 최우의 애첩이요 명기인 옥기향 둘이 짝이 되어 뜯는 가얏고.

명수 김선이 타는 비파.종지가 켜는 해금.설원이 치는 장고.

아! 병축야유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명기 일지홍이 비껴대고 부는 멋진 피리 소리를,

아! 듣고야 잠들고 싶습니다.

◎ 주제 : 흥겨운 주악(奏樂)과 악기 소리의 아름다움

【제7장】

蓬萊山 方丈山 瀛洲三山 / 此三山 紅縷閣 婬妲仙子 / 綠髮額子 錦繡帳裏 珠簾半捲

봉리산 방당산 영주삼산 차삼산 홍류각 작약선주 록발익주 금슈당리 주렴반권

위 登望五湖<sup>^</sup> 景 其 엇더하니잇고

등망오호 경

(葉) 綠楊綠竹 栽亭畔애 綠楊綠竹 栽亭畔애 / 위 嚙黃鸝 반갑두세라

록양록죽 지정반 록양록죽 지정반 년황앵

◎ 현대어 풀이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의 삼신산 / 이 삼신산에 있는 홍류각의 미녀

가인이 금수휘장 속에서 구슬발을 반쯤 걸어올리고.

아! 높은 대에 올라 멀리 오호를 바라보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푸른 버드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심어진 정자가 있는 언덕에서,

아! 지저귀는 피꼬리가 반갑기도 하구려.

◎주제 : 선경의 미녀와 피꼬리의 자태

【중요! 제8장】

唐唐唐 唐楸子 皂莢남괴 / 紅실로 紅글위 미요이다 /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 하

당당당 당츄주 조협 흥 흥 텅소년

위 내가는 디 늑 갈세라

(葉) 削玉纖纖 雙手<sup>^</sup> 길헤 削玉纖纖 雙手<sup>^</sup> 길헤 / 위 携手同遊<sup>^</sup> 景 其 엇더하니잇고

삭옥섬섬 상슈 삭옥섬섬 상슈 휴슈동유 경

● 현대어 풀이

호두나무, 쥐엄나무에다 /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매었습니다

그네를 당기시라 미시라 왈자패인 정소년이여.

아!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구려.

마치 옥을 깎은 듯이 가녀린 아리따운 두 손길에,

아! 옥같은 손길 마주 잡고 노니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 주제 : 그네뛰기의 즐거운 광경과 풍류 생활의 찬양 (순우리말 표현이 많음)

수능특강 54P '어부단가' 유사작품 엮어 읽기 (윤선도 어부사시사)

春詞(춘사)

1.

압개에 안개 짓고 뒷뫼희 히 비친다  
비떠라 비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至지鶯국憲총 至지鶯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江강村촌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앞 갯벌에 안개 걷히고 뒷 뫼에 해 비친다  
배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강촌에 온갓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2.

날이 덩도다 물 우희 고기 떴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굴며기 들식 세식 오락가락 ㅎ는고야  
至지鶯국憲총 至지鶯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낚대는 쥐여 있다 濁탁酒주人瓶병 시릿느냐

날이 덩도다 물 위에 고기 떴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갈매기 들씩 셋씩 오락가락 하는고나  
낚대는 쥐여 있다 탁주병 실었느냐

3

東동風풍이 건든 부니 물결이 고이 닐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東동湖호를 도라보며 西서湖호로 가자스라  
至지鶯국憲총 至지鶯국憲총 於어思사臥와  
압뫼히 디나가고 뒷뫼히 나아온다

동풍이 건든 부니 물결이 고이 인다



뭇 달아라 뭇 달아라  
동호를 돌아보고 서호로 가자꾸나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다가온다

4

우는 거시 벉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숨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 들락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뒤노는다

우는 것이 빠꾸긴가 푸른 것이 버들숨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  
맑아한 깊은 소에 온갓 고기 뛰논다

5

고운 별티 췌얀는디 물결이 기름긷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두랴 낙시를 노홀일가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濯탁纓영歌가의 興흥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고운 별 췌였는데 물결이 기름갈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던져둘까 낙시를 놓으리까  
탁영가<sup>1)</sup>의 흥이 나니 고기도 잊었도다.

6

夕석陽양이 빗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자  
돈디여라 돈디여라  
岸안柳류汀汀化화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三삼公공을 불리소냐 萬만事스를 생각하랴

석양이 비겼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1) <어부사>에 있는 노래. '탁영'은 갓끈을 씻는다는 뜻임.

뭇 지어라 뭇 지어라  
버들이며 물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정승을 부러워할소냐 세상만사 생각하라

7

防芳草초를 불와 보며 蘭난표지도 뜨더보자  
비세여라 비세여라  
一일葉엽片편舟주에 시른 거시 므스것고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갈 제는 너뿐이오 올 제는 둘이로다

꽃풀을 바라보며 난초 영지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갈 때는 나 뿐이오 올 때는 달이로다

8

醉취하야 누언다가 여흘 아래 누리려다  
비미여라 비미여라  
落락紅홍이 흘러오니 桃도源원이 갓갓도다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人인世世紅홍塵塵이 언메나 可러느니

취하여 누웠다가 여을 아래 내려가련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붉은 꽃이 흘러오니 무릉도원 가깝도다  
세상의 티끌이 얼마나 가렸는고

9

낙시줄 거더노코 蓬봉窓창의 달을 보자  
달디여라 달디여라  
흐마 밤들거나 子子規규소리 몹게 난다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나쁜 興흥이 無무窮궁하니 갈 길흠 니젓맛다

낙시줄 걷어 놓고 봉창의 달을 보자  
뭇 지어라 뭇 지어라

하마 밤 들었나 두견이 소리 맑게 난다  
남은 흥이 무궁하니 갈 길을 잊어도다

10.

來리日일이 또 업스라 봄밤이 몇덜새리  
비브터라 비브터라  
낫대로 막대삼고 柴식扉비를 츠자보자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漁어父부生生涯애는 이렁구러 디널로다

내일이 또 없으랴 봄밤이 얼마 만에 새리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낫대로 막대 삼고 사립문 찾아보자  
어부의 생애는 이렁구러 지내도다

#### 하사(賀詞)

1.

구즌 비 머저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비떠라 비떠라  
낫대를 두러메니 기픈 興흥을 禁금 못 할되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煙연江강疊疊嶂장<sup>2)</sup>은 杼라셔 그려넨고

긋은비 몇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떠라 배떠라  
낫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금치 못할러라  
안개 강 첩첩 봉우리는 杼라셔 그려넨고.

2.

년 杼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달드러라 달드러라  
靑靑蕩약笠립은 杼잇노라 綠녹蓑사依의<sup>3)</sup> 가져오냐  
至지窻국窓총 至지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駒구는 내 杼는가 제 杼는가

2) (煙江疊嶂) : 안개강과 첩첩이 둘러 산

3) 색의 도롱이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랑 장만마라  
뭇 들어라 뭇 들어라  
대삿갓은 써 있노라 도롱이 가져오나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저를 쫓는가

3.

마람<sup>4)</sup> 님희 바람나니篷봉窓창이 서늘코야  
돋드라라 돋드라라  
녀름바람 덩흠소냐 가는 대로 비시켜라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北북浦포南남江강 이 어디 아니 도흘러니

마름 앞에 바람나니 봉창이 서늘하구나  
뭇 달아라 뭇 달아라  
여름 바람이 일정할소냐 가는대로 비 맡겨 두어라  
북포구 남강이 어디 아니 좋을런가.

4.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엇더허리  
이어라 이어라  
뭇오江강<sup>5)</sup>의 가자허니 千천年년怒노濤도 슬플로다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楚초江강의 가자 허니 漁어腹복忠통混혼<sup>6)</sup> 날글세라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은 들 어떠하리  
이어라 이어라  
오강에 가자하니 오자서 원혼 슬프도다  
초강에 가자하니 굴원의 충혼 혹 님을라.

5.

萬만柳류綠녹陰음 어린 고대 一일便편苔타磯기 奇기特특하다  
이어라 이어라

4) : 풀 이름

5) 오강 : 오자서가 참소를 당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사인(舍人)에게 “내 눈을 빼어 오의 동문에 걸어 월이 쳐 들어와 오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했는데 부차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자서의 시체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 강에 버리게 하니, 노도가 일고 후에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했다는 고사.

6) 초의 굴원이 회왕을 섬겼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떡리수에 빠져 죽은 충혼. 물에 빠져 죽었다 하여 고기 비 속의 충성심이라 함.

드리에 다 듣거든 漁人인爭징渡도<sup>7)</sup> 허물마라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鶴학髮발老로翁옹 만나거든 雷뢰澤택讓양居거<sup>8)</sup> 效효側측하자

버들 푸르게 어린 곳에 이끼 낀 돌 하나 참 좋구나  
이어라 이어라  
다리에 다다르거든 어부들 건넌다툼 허물마라  
센 늙은이 만나거든 뇌택의 자리양보 본을 받자

6.  
긴 날이 저르는 줄 興흥의 미쳐 모르도다  
돌디여라 돌디여라  
빛대를 두드리고 水슈調묘歌가<sup>9)</sup>를 불러 보자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欸애乃내聲성<sup>10)</sup>中중에 萬만古고心심을 그 뉘알고

긴 날이 저무는 줄 흥에 미쳐 몰랐도다  
돛 지어라 돛 지어라  
돛대를 두드리며 수조가를 불러보자  
애내성 소리에 만고 수심을 누가 알고

7 .  
夕석陽양이 도타마는 黃황昏昏이 갓갓거다  
비세여라 비세여라  
바회 우희 에구븐 길 솔 아래 빗겨 있다  
至지芻국憲총 至지芻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碧벽樹슈鶯앵聲성<sup>11)</sup>이 곧곧이 들리느다

석양이 좋다만은 황혼이 가깝도다  
배 세워라 배 세워라  
바위 위 에굽은 길 소 아래 비껴 있다  
나무에 꾀꼬리 소리 곳곳에 들리는구나.

7) : 낚시꾼들이 다투어 건넌

8) 뇌택양거 : 순입금이 뇌택에서 고기를 낚을때에 그곳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양보했다는 고사

9) 수조가 : 수양제가 만든 노래

10) 애내성 : 노젓는 소리

11) 벽수앵성 : 파란 나무에 꾀꼬리 소리

8.

물괘 우희 그물 넣고 돛<sup>12)</sup> 미퓌 누어 쉬자  
비매어라 비매어라  
모괴를 뭇다 흐랴 蒼蒼蠅승과 엇더하니  
至지匆국憲총 至지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다만 한 근심은 桑上大大夫부 드르려다

모래 위에 그물 넣고 배 지붕 뚝 밑에 누워 쉬자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모기를 뭇다 하랴 쉬파리와 어떠한가  
다만지 한 근심은 상흥양이 들을라

9.

밤 스이 風풍浪낭을 미리 어이 짐작하리  
닫디여라 닫디여라  
夜야渡도橫횡舟舟<sup>13)</sup>를 뉘라셔 닐릿논고  
至지匆국憲총 至지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澗간邊변幽유草초도 眞진實실로 어연브다

밤 사이 풍낭을 미리 어이 짐작하리  
닫 지어라 닫 지어라  
나룻터 빈 배를 그 누가 말했던고  
계곡에 향기풀이 진실로 어여쁘다.

10.

蝸와室실<sup>14)</sup>을 바라보니 白백雲운이 둘러있다  
비붓터라 비붓터라  
부들부채 가라 쥐고 石석逕徑으로 올라가자  
至지匆국憲총 至지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漁어翁翁이 閑한暇가터냐 이거시 구실이라

조막집 바라보니 백운이 둘러 있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부들 부채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12) : 배의 지붕

13) 야도횡주 : 들 가운데 있는 내의 건널목엔 빈 배만 매어 있음

14) 와실 : 달팽이 집. 자신의 작은 집을 이룸

## 추사(秋詞)

1.

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夫부生싱涯이 아니러나  
비떠라 비떠라  
漁어翁옹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四스時시興흥이 흥가지나 秋추江강이 음듬이라

세상 밖에 좋은 일이 어부 생애 아니더나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부들 부채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2.

水슈國국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꺾지 容용與여호자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人인間간을 도랴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물나라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있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만이랑 맑은 파도에 실컷 안겨 보자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3.

白백雲운이 니러나고 나모 곳티 흐느킨다  
돈드라라 돈드라라  
밀물의 西서湖호 | 오 혈물의 洞동湖호가자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白백蘋빈紅홍蓼료는 곳마다 景경이로다

흰 구름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흐느킨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밀물에 서호요 썰물에 동호가자

흰 마름 붉은 여뀌는 곳마다 경치로다.

4.

그러기 떴는 박괴 못 보던 뉘 보느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허려니와 趣취흔 거시 이 興흥이라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夕석陽양이 브이니 天천山산이 金금繡슈 | 로다

기러기 떴는 밖에 못보던 뉘 보이는구나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하려니와 얻는 것은 흥이로다  
성양이 눈부시니 온갖 산이 금수로다.

5.

銀은脣순玉옥尺척이 몇치나 걸런느니  
이어라 이어라  
蘆로花화의 불부러 곱히야 구어 노코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딜병을 거후리혀 박구기에<sup>15)</sup> 브어 다고

흰 아가미 큰 고기들이 몇이나 걸렸는고  
이어라 이어라  
갈꽃에 불 붙어 골라서 구어 놓고  
질병을 기을여서 박구기에 부어다오.

6.

넙바람이 고이 부니 드론 돌괴 도라와다  
돈디여라 돈디여라  
瞑명色식은 나아오디 淸淸興흥은 머리 인다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紅홍樹슈 淸淸江강이 슬미디도 아니한다

옆바람이 고이 부니 다른 돛자리에 돌아왔다  
돛 지어라 돛 지어라  
어스름은 다가오되 맑은 흥은 멀었구나

---

15)



단풍잎 맑은 강이 물리지도 아니한다.

7.

흰 이슬 빈건논디 불근 돌 도다온다  
비세여라 비세여라  
鳳봉鳳황樓루 渺杳然연하니 淸淸光광을 놀을 즐고  
至지罔국憲총 至지罔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玉옥兪토의 띠는 藥약을 豪호客객을 먹이고자

흰 이슬 내렸는데 밝은 달 돌아온다  
배 세워라 배 세워라  
봉황루 아득하니 맑은 빛을 누굴 즐고  
옥토끼 짙는 약을 호걸을 먹이고 싶구나.

8.

乾건坤곤이 제곰인가 이거시 어드메오  
비매여라 비매여라  
西서風풍塵딘 묻미츠니 부체하야 머엇하리  
至지罔국憲총 至지罔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드론 말이 업서시니 귀시서 머엇하리

건곤이 제가곰 뭇인가 이것이 어디멘고  
배 매어라 매 매어라  
서풍 먼지 못 오는데 부채하여 무엇하리  
들은 말 없었으니 귀 씻어서 무엇하리.

9.

옷 우희 서리오디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달디여라 달디여라  
釣釣船선이 좁다 하나 浮부說세과 얻더하니  
至지罔국憲총 至지罔국憲총 於어思스臥와  
내일도 이리 하고 모뢰도 이리 하자

옷 위에 서리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구나  
땃 지어라 땃 지어라  
낚싯배 좁다 하나 뜬 세상과 어떠한가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10.

松송間간石석室실의 가 曉효月월을 보자 하니  
비브터라 비브터라  
空공山산落락葉엽의 길흙 엇디 아라불고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白백雲운이 좃차오니 女녀蘿라依의 므겁고야

솔 사이 석실에 가서 새벽달을 보자 하나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빈 산 낙엽에 길을 어찌 알아볼꼬  
백운이 따라오니 걸친 옷이 무겁구나.

**동사(冬飢)**

1.

구름 거둔 후의 힘빚치 두텁거다  
비떠라 비떠라  
天텡地디閉폐塞식 호디 바다흔 依의舊구 한다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꺾업슨 물결이 김편 듯 하여있다

구름 걷은 후에 햇빛이 두텁구나  
배 떠라 배 떠라  
천지 막혔으나 바다는 그대로구나  
가없는 물결이 비단을 편 듯 하여 있다.

2.

주대 다스리고 빗밥<sup>16)</sup>을 박았느냐  
닫드러라 닫드러라  
瀟쇼湘상洞동庭庭은 그물이 언다 한다  
至지衆국憲총 至지衆국憲총 於어思사臥와  
이때예 漁어釣釣하기 이만한 디 업도다

뉘대 챙기고 뱃밥은 박았느냐  
댓 들어라 댓 들어라

---

16) 박는 물꼬

소상강이며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 한다  
이때에 고기잡기 이만한 데 없도다.

3.

여튼 갯 고기들히 먼 소히 다 갯느니  
돋다라라 돋다라라  
저근덜 날 도흔 제 바탕의 나가보자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밧기 곧<sup>17)</sup> 다오면 굴근 고기 문다 한다

열은 갯벌 고기들이 먼 소에 다 갔으니  
돛 달아라 돛 달아라  
잠깐 날 좋은 때 바다에 나가 보자  
미끼가 좋으면 굶은 고기 문다 한다.

4.

간밤의 눈갯 後후에 景경物물이 달랑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만頃경琉류璃리 뒤희는 天천疊疊玉옥山산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仙선界계니가 佛불界계니가 人人間간이 아니로다

간밤의 눈 갯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앞에는 유리 바다 뒤에는 첩첩 흰 산  
신선 땅 부처 땅인가 인간은 아니로다.

5.

그물 낚시 니저 두고 빗전을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압개를 건너고자 먼 번이나 헤여본고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無무端단흔 된브람이 흥혀 아니 부러올까

그물 낚시 잊어두고 빗전을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

17) 곧 : 미끼만

앞 갯벌 건너고자 몇 번이나 헤아려 본고  
무단한 된바람이 행여 아니 불어올까.

6.

자라가는 가마귀 먼날치 디나거니  
돋디여라 돋디여라  
압길히 어두우니 暮모雪설이 자자떨다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鵝아鴨압池<sup>18)</sup>를 닦터서 草초木목斬참을 심돋던고

자러가는 까마귀 몇 마리 지나갔느냐  
뚝 지어라 뚝 지어라  
앞길이 어두우니 저녁눈이 자옥하다  
아압지를 주가 쳐서 부끄러움 씻었던가

7.

丹단崖애翠취벽벽이 畫화屏屏 곧티 들렀는데  
비세여라 비세여라  
巨거口구細세鱗린을 낚그나 문 낚그나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孤고舟舟蓑사笠립에 興흥계워 안잤노라

붉은 암벽 푸른 암벽 그림병풍같이 들렀는데  
배 세워라 배 세워라  
큰 주둥이 가는 비늘 낚으나 못 낚으나  
외론 배 사립에 흥겨워 앉았노라.

8.

물꺾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하고  
비매여라 비매여라  
머흔 구름 恨흔티 마라 世世上상을 꺾리온다  
至지窺국憲총 至지窺국憲총 於어思사臥와  
波파浪랑聲성을 厭염티 마라 塵塵暄暄을 막는또다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하고

18) : 당나라 때에 오원제가 회서에서 난을 일으키매, 이소가 설야에 채성을 칠때 오리떼를 놀라게 해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이용해 성을 함락시켰다는 뜻.

배 메어라 배 메어라  
험한 구름 한하지 마라 세상을 가려준다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티끌과 시끌 막는도다.

9.

滄창州쥬뫼오道도를 네브터 날런더라  
달디여라 달디여라  
七칠리리 여흘 羊양피피 옷<sup>19)</sup>슨 그 얻더 ㅎ니런고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三삼千천六륙白백 낙시질은 손 고븐 제 엇디턴고

창주 우리 도를 예부터 일렀더라  
땃 지어라 땃 지어라  
칠리탄에 양피 옷 사람 그 어떤 사람이런가  
십년간 뉘시질은 손꼽아 볼 때 어떠하던가.

10.

어와 저므러간다 宴연息식이 만당토다  
비붓터라 비붓터라  
7는 눈 뿌린 길 불근 곳 훗더딘 디 흥치며 거러가서  
至지窠국憲총 至지窠국憲총 於어思사臥와  
雪설月월이 西셔峰봉의 넘도록 松송窓창을 비겨 잇자

어와 저물어 간다. 잔치함이 마땅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치며 걸어가서  
눈 속에 달이 서산에 넘도록 창에 술을 비껴 잇자.

해석참고 - 연강 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시조2, 박을수 역주

19) 여흘 양피 옷 : 엄자룡이 양피옷을 입고 칠리탄에서 뉘시질을 했다던 고사